

# 대형 공원 패러다임과 한국 공원의 대형화

박선희\*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 공학부

## I. 들어가며: 대형 공원의 범람

한국 조경에서 “대형 공원”은 현재진행형의 이슈이다. 우리는 최근 10년 사이 다수의 대형 공원 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잦은 용도변경으로 골머리를 앓던 1,156,498m<sup>2</sup> 면적의 성동구 도심 부지는 유례없는 단일 용도로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어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숲이 되었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부지 중앙에 펼쳐진 6,982,000m<sup>2</sup> 가량의 대규모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정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공간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확정하였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통해서 1,487,374m<sup>2</sup> 규모의 여의도 한강공원이 조성되었고, 광고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되어있는 2,043,858m<sup>2</sup> 규모의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일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광고 호수공원이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될 자리에 2,426,748m<sup>2</sup>의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을 설계하는 국제설계공모가 실시되었다.

대규모의 도시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공원화를 진행한 도심 부지, 도시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의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밀도의 도시인 서울 한가운데에서 생태적 재생과 문화적 교류를 동시에 요구하는 용산 미군기지 등, 이들은 이론적·실천적으로 외국에서 논의해온 “대형 공원” 담론<sup>1)</sup>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대형 부지의 복잡한 문제들을 조율하는 설계를 도출하였다. 이는 “대형 공원”이라는 동시대적 과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활발한 사업과 그 성과가 가리고 있었던, 애매하고 복잡한 “대형”이라는 조건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 커야 하는가? 얼마만큼 커야 하는가? 큰(대형) 공원은 왜 필요한가? 큰(대형) 공원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대형 공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형”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상을 분석하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형 공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2000년대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공원 논의와 설계 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한국 사회에 대형 공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대형 공원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원 설계의 대상으로 대규모의 부지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산업 사회의 잔해인 폐 공업 부지, 쓰레기 매립지, 군 기지 등의 교란된 부지(disturbed site)<sup>2)</sup>이다. 부지들은 공원화를 통해 오염된 광범위한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산업 사회에서 도시에 미쳤던 영향력을 되찾고자 한다. 따라서 조경 분야는 이러한 교란된 부지의 요구에 응답하는 진화된 공원 설계를 모색하기 위해, 생태·프로세스·도시적 맥락·공공·역사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끌어들이었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촉발시킨 다수의 글이 2000년 다운스뷰 파크 설계경기의 사례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640에이커(2,589,988m<sup>2</sup>) 면적의 다운스뷰 부지는 토론토 외곽의 공군 기지였는데,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외곽의 공지가 아닌 도시의 일부가 되었다. 공원화가 확정된 다운스뷰 부지는 토론토의 ‘교외 강화 구역(suburban intensification area)’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도시 개발을 강화하려는 시 당국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설계경기의 출품작들은 도시와 공원이 맺는 관계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우승작인 트리시티는 결과물이 아닌, 공원을 만들어가는 레시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마스터플랜이었음에도 설득력을 얻었다. 트리시티의 전략은 미래에 공원의 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소한의 표현인 원형의 나무 군락 매트릭스는 주변 지역의 녹지와 연결되어 도시와 공원 각각의 시스템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이는 공원의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도시의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 트리시티의 또 다른 전략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대형 공원이 시간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유지시키는 재정 확보 방안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다운스뷰 파크 국제설계경기와 트리시티 안이 패러다임의 전이를 일으킨 기념적인 사건이라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에 전문가들에게 전하는 바 또한 분명하다. 공원은 더 이상 반도시적 목가의 낭만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의 영역에서 변화와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 특히 “대형”이라는 형용사가 조경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는 동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지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운스뷰로 대표되는 새로운 공원 설계 패러다임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형”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공원이 생태와 문화 등 다양한 문제들과 풍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부지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 공원이 도시적 작동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도 부지의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한다.

줄리아 처니악은 공원에 대형이라는 조건이 이미 현대 공원의 시초인 센트럴 파크에서부터 필수적이었으며, 도시·환경·생태·문화 등 다른 분야의 논의 속에서도 대형 공원이 도시를 구원할 대안적인 개발이라는 주장이 발견된다고 하였다(Czerniak, 2007). 제임스 코너 역시 “효과적으로 설계된 대형 공원을 지니지 못한 도시는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Corner, 2007)이라고 주장하며 대형 공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논의는 대형 공원에 대한 동시대적 수요와 그에 응답하는 다수의 설계 사례, 레이크 온타리오 파크(925에이커, 3,743,342m<sup>2</sup>), 노스 링컨 파크(1,000에이커, 4,046,856m<sup>2</sup>),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1,316에이커, 5,325,663m<sup>2</sup>) 프레쉬킬스 파크(2,200에이커, 8,903,084m<sup>2</sup>) 등을 통해 더욱 힘을 얻는다. 이와 더불어 공원 설계의 변화와 실험은 조건 반응과 같다. 린다 폴락은 프레쉬킬스의 공원화 사례를 놓고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확립된 공원 설계의 미학적 전통에 도전하는 접근들의 축진제로 작동한다”(Pollak, 2007)고 말하였고, 아나타 베리즈베이시아는 “대형 공원의 설계와 조성은 종종 공공 행정과 중간 과정의 재정 변화 및 진행 도중에 개정을 요구하는 공공 절차로 인해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과 불균등한 수준의 개입 및 관리를 통합하는 비종결적 설계가 필요하다”(Berrizbeitia, 2007)고 말하였다.

폐 산업부지와 다운스뷰 파크 등으로 파편화되어 논의되었던 공원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대형 공원”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대형 공원의 패러다임은 “대형”이라는 강한 특성 때문에 종종 논의의 본질을 잃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대형 공원의 논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형 공원의 이미지는 물리적으로 큰 공원, 생태적인 보존 가치를 지니는 녹지, 상징적 경관이 넓게 펼쳐져 있는 어떤 영역 등이다. 그래서 다운스뷰와 같은 넓은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계획되었다는 정보 속에도 사람들은 무심코 야생의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데드레프 메르틴즈는 국립공원으로서의 다운스뷰 부지가 현존하는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야생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활발한 이용을 했던 과거의 모습(농업, 산업, 군사시설 등)과 같이 다시 활성화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명백한 도시공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곳이라고 언급한다(Mertins, 2001).

대형 공원은 어떠한 물리적 특성에 의해 유형화되는 개념이 아니라, 메르틴즈의 말처럼, 도시 공원이라는 동시대적 수요에 반응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때때로 “대형”이라는 규모적 특성은 혼돈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처니악은 다운스뷰 공원의 규모로 언급한 바 있는 500에이커(2,023,428m<sup>2</sup>)를 편의상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대형 공원의 논의에서 “대형”이라는 규모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논의의 본질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화하는 “공원”에 있다.

### III. 한국 공원의 대형화

우리는 단순히 크기가 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공원이라는 패러다임에 합의하고 있는 한국의 현상을 마주한다. 이것은 단지 대형 공원이 많이 계획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외국의 대형 공원 설계 담론에 대한 빠른 흡수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공원의 대형화를 이끌었는가?

2003년 서울시 동북부에 위치한 성동구의 옥섬 부지, 서울시 최초의 정수장이 있었던 부지이며 경마장으로 운영된 바 있고 지금까지 체육공원으로 이용되었던 이곳에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부지는 다운스뷰 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 당국의 개발 의지가 고조되어 있는 땅이었다. 만약 서울숲 부지를 주거업무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약 4조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명백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원 녹지로 계획되었고,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1,156,498m<sup>2</sup>라는 대규모의 공원 녹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의 공원 조성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조성된 올림픽 공원이나 월드컵 공원은 서울숲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원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대형 공원과 다르게, 서울숲 설계공모는 한국 조경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례로 월간 잡지 『환경과 조경』은 서울숲과 관련한 특집을 3회나 기획하였고<sup>3)</sup>,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지면을 채우는 비평과 에세이를 작성하였으며, 제목이나 연구 대상에 ‘서울숲’이 들어가는 학술 원고도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논의는 서울숲 조성에 대한 대중적으로 다소 들뜬 심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숲은 동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한국 조경 설계에 유입된 다운스뷰 파크 설계가 관련되어 있다. 이상민은 서울숲 설계공모에서, 다운스뷰파크 설계에서 부각되었던 포토몽티주나 다이어그램이 출력작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고(이상민, 2006), 서울숲의 설계언어와 전략에 기존 설계와는 다른 태도가 존재하며, 이것이 한국 조경 설계가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다고 보았다(이상민과 조정승, 2004).

필자는 서울숲을 기점으로 한국 조경 분야가 대형 공원이라는 패러다임에 합의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서울숲 이후로, 그보다 더 큰 부지에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국내의 설계공모를 통해 진화하는 미래의 공원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 방식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갖는다. 개발을 포기하고 대형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형 공원을 통해 '4조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대형 공원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숲 이후 대형 공원이 조성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이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거 밀집 지역의 공원 녹지 확보를 위한 대형 부지의 용도변경이다. 이는 '서울숲'이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숲 사업의 배경은 생활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가 부족한 서울시 동북부 지역에 대표적인 거점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본래 정수장과 체육시설, 대중 골프장과 승마장이 있는 공간이었으나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도변경이 요청되었다. 2009년 완공된 '북서울 꿈의 숲' 또한 이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다. 해당 지역은 장위, 길음, 미아뉴타운 조성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이렇게 할 공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황량한 주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강북구의 드림랜드 부지에 주목하였고, 놀이공원으로서의 현재 용도를 변경하고 인근 지역으로 영역을 더 확장시켜서 대형의 녹지 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이 역시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형 공원 사업이다. 2004년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되면서,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건설청은 도시 중앙의 장남평야 일대를 비우고 도시 기능을 그 주변부에 환상형으로 배치하는 실험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중앙부를 공원화함으로써 비위계적·탈중심적·민주적 도시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앙녹지공간 계획은 도시 경관 전체의 수평적 판과 틀이 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았다(임승빈, 2006). 대형의 중앙녹지공간에 대한 설계는 곧 신도시 건설의 주연이자 도시 성장의 바탕이 된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형 공원은 명백히 도시 건설에 능동적인 요소였다. 광고 신도시 사업의 경우도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수용하는 자족적인 지방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거점인 신대저수지와 원

천저수지 일대가 공원 부지로 선택되었다. 건설 주체는 공원이 될 이 부지의 설계 목표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처럼, 공원이 도시의 건설과 역동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민선 4기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형 수변 공원 설계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의 생태적 기능과 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강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었다. 한강을 통해 서울의 생태적, 문화적, 도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 한강 공원과 마곡 워터프론트 등의 수변 공원화 계획으로 논의가 구체화된다. 이들 공원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이라는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설계였다. 따라서 여의도 한강 공원의 경우, 기존의 인공 호안을 해체하고 자연 호안을 만드는 방안이, 마곡 워터프론트의 경우는 수리·수문 및 물 관리 방안이 주요한 설계 내용으로 제안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형의 수변 공원이 시민들의 역동적인 여가 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거점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설계상의 필수 과제였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으며, 국가적으로 특수한 배경을 가진 용산공원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아온 군사 기지였다. 기지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개발을 넘어서는 회복이었다. 따라서 공원화라는 목표 하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생태적인 회복이 절실했다. 이 터는 지난 수십 년 간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산으로부터 이어지는 구릉지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따라서 해당 부지의 생태성 회복은 공원화 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대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대상지의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을 다루는 것 또한 공원의 과제였다.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지는 부지를 해석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원 설계의 몫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배의 역사를 넘어서 주체성을 회복한, 한국 시민 사회의 중심 거점으로서 이 부지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하다. 따라서 용산공원의 기반에는 모두가 주인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장소라는 개념이 필수적이었다.

이상의 네 가지 유형은 한국 공원이 대형화된 배경과 그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지역 주거 환경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건설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문화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부지로부터 주어진 거대 서사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는 대형 공원 패러다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드러낸 특수한 태도이기도 하다.

이 특수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 사회는 대형 공원을 강한 도시 인프라로서 인식한다. 이는 대형 공원 패러다임이 도시화에 대응하는 작동적인 도시 공원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공원을 도시 인프라로서 인식하는 것에는 보다 중차대한 책임감이 엮여있다. 공원 녹지 확보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들은 급속도로 도시화된 현재의 한국 도시를 진단하고 미래의 도시 문화를 예비하려는 태도이다. 이는 짧은 시간동안 빠른 발전을 거듭한 한국 도시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한국 사회는 대형 공원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상징적 오브제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서울숲과 북서울 꿈의 숲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이끌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상징적 거점 녹지로서 조성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과 광고 호수공원은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이 될 것을 요청받았다. 용산공원 역시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제와 동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포용하는 최초의 국가공원이라는 강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는 공원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외국의 경우 공원은 철저히 일상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 속에서 공원은 일상적이지 않은 수면된 개념으로, 거대 서사적인 상징성을 주요한 기반으로 둔다.

## IV. 나가며

한국 공원의 대형화 현상은 결국 대형 공원 패러다임으로 수렴된다. 동시대의 도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원의 진화를 요청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형 공원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특수한 태도는 대형 공원에 도시적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능과 상징적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형” 공원 패러다임의 요청에 맞게, 거시적으로 도시 공간 속에서 공원의 작동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공원”의 영원한 목표인 사소하고 일상적인 여가적 기능을 축소시키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형 공원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계되었는가는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실제 설계 사례와 시공된 공원들을 통해 목표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설계의 방식에

는 어떠한 진화가 있었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대의 고민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대형 공원의 설계안과 결과물을 분석하고 논의해 보는 것을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 
- 주 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북미를 중심으로 조경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형”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공원 설계의 담론을 이끌었다.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공원 설계공모와 2003년 하버드대학교 설계대학원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Large Parks: The New Perspective”, 2007년 줄리아 츠니악(Julia Czerniak)과 조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가 공동 편집한 책 『라지 파크(Large Parks)』 등이 바로 그것이다 (Czerniak, 2007).
- 주 2.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라지파크』의 에세이 「불확실한 공원들\_교란된 부지, 시민, 그리고 위협 사회」에서 “교란된 부지”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 산업 용지로 사용되어 더럽혀지거나 오염된 광범위한 범주의 경관을 설명하기 위해, “교란된 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 부지들은 일반적으로 브라운 필드나 그레이 필드라고 불리고, 법적으로는 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수퍼펀드 부지, 전문적으로는 새로운 제조 부지, 황무지, 독성 부지로 불린다”(Meyer, 2007).
- 주 3. 월간잡지 환경과 조경은 현상공모가 완료된 2003년 5월호에 서울숲 설계와 관련한 ‘서울숲 공모’를 특집기사로 실었고, 같은 해 6월호에는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 리뷰”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을 구성하였으며, 서울숲이 완공된 2005년 9월호에는 “서울숲\_서울숲이 조성되기까지”를 특집으로 기획하여 설계분야부터 시공 및 관리 분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상민(2006)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민, 조정송(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15-27.
- 임승민(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설계 기본 방향 구상. 환경과 조경 223: 162-165.
- Berrizbeitia, A.(2007) Re-placing Process. In Czerniak, J.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현+idla(역) 라지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 188-215.
- Corner, J.(2007) Forward. In Czerniak, J.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현+idla(역) 라지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 11-14.
- Czerniak, J.(2007) Introduction: Speculating on site. In Czerniak, J.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현+idla(역) 라지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 19-35.
- Mertins, D.(2001) Downsview park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In Czerniak, J. ed. Case: Downsview Park Toronto. Harvard Design School and Prestel. pp. 24-31.
- Meyer, E. K.(2007).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In Czerniak, J.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현+idla(역) 라지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 65-95.
- Pollack, L.(2007) Matrix landscap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large park. In Czerniak, J.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현+idla(역) 라지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 97-133.